

- 주요 뉴스: 미국 8월 소매매출, 전월비 증가.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재부각
 - IMF와 세계은행, 세계 경제 전망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 제시
 - ECB 부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
 -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위안화 약세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고강도 통화긴축 우려 증폭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1%],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영향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정유 및 기술주 약세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조 유지 전망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0.3%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FOMC에 대한 경계감 등이 영향
 독일은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5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97.5원, +3.8원) 0.4% 상승, 한국 CDS 보합

		9/15일	9/14일	전일대비			9/15일	9/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01.4	3,946.0	-1.13%	국채 금리 10y	미국	3.45%	3.40%	4bp
	유럽	414.78	417.51	-0.65%		독일	1.77%	1.72%	5bp
	중국	3,199.9	3,237.5	-1.16%	CDS 5y	한국	32bp	32bp	0bp
	일본	27,876	27,819	0.21%		중국	72bp	72bp	0bp
	한국	2,401.8	2,411.4	-0.40%	위험 지표	EMBI+	-	424	-
환율	달러지수	109.72	109.66	0.05%		VIX	26.27	26.16	0.42%
	유로화	1.0001	0.9981	0.20%		WTI유	85.10	88.48	-3.82%
	엔화	143.52	143.08	-0.31%	원자재	구리	352.4	354.6	-0.62%
	위안화	6.9946	6.9618	-0.47%		금	1,665.1	1,697.3	-1.90%
	원화	1,393.7	1,390.9	-0.2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소매매출, 전월비 증가.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재부각

- 해당 소매매출은 전월비 0.3% 늘어 예상치(0.0%) 상회했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7월(-0.4%)과 달리 증가세 전환. 인플레이션 영향 파악이 가능한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9.1% 증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
- 이번 결과는 2학기 시작에 따른 자동차 구매(3.0%) 및 외식 증가 등에 기인. 이외에 건축자재(1.1%) 등도 증가. 반면 가구(-1.3%)와 전자제품(-0.1%) 등은 부진
- 일부에서는 최근 휘발유 가격의 큰 폭 하락을 고려한다면 소비가 오히려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 근원 소매매출도 인플레이션 반영 시 전월비 0.5% 감소를 기록. 소매매출과 수출 등을 감안하면 3/4분기 성장률은 2% 미만일 것으로 추정
- 한편 Credit Suisse의 Ray Farris는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장 역시 양호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연준이 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해석
- 다만 블룸버그의 Eliza Winger는 소매매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여기에는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 이에 이번 결과만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와 세계은행, 세계 경제 전망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 제시

- IMF의 라이스 대변인은 고물가 및 금융 여건 위축 등으로 3/4분기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 몇몇 국가의 경우 '23년 경기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전세계 경기침체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
- 세계은행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국 모두 급격한 성장 둔화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
- 맬패스 총재는 급격한 글로벌 성장 둔화 속에서 일부 국가는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 중인 금리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 피력

■ 미국 9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5주 연속 감소세. 양호한 노동수요 지속

- 해당 건수는 21.3만건으로 전주 대비 0.5만건 감소. 이번 결과는 향후 경제 전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노동시장 여건이 견조함을 시사. 다만 일부에서는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이 결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ECB 부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

- 데 쿼도스 부총재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과감한 행동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증가로 인한 2차 영향을 제어해야 한다고 첨언
- 아일랜드 중앙은행 마클로프 총재는 절대적으로 금리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필요한 행동이 늦어질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통화긴축이 요구된다고 발언

■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위안화 약세 등을 반영

- 최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및 위안화 약세 등을 고려하여 MLF 금리인하 등의 완화 조치는 중단. 다만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MLF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6000억위안 중에서 4000억위안은 만기를 연장. ANZ의 Xing Zhaopeng는 10월 소폭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
- 한편 이날 5대 국영은행은 가계 예금금리를 소폭 인하. 이번 결정은 가계 예금의 억제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

■ 일본 8월 무역수지 적자, 43년 만에 최대. 엔저에 따른 수입 급증 등이 원인

- 해당 적자는 2.82조엔으로 1979년 이후 최대 수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수입이 급증. 수입은 전년동월비 50% 증가한 10.87조엔, 수출은 22% 증가한 8.06조엔.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5, 8월(-31.3), 예상치(-12.9)
- 미국 8월 수입물가(전년동월비): 7.8%, 7월(8.7%), 예상치(7.9%)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긴축, 9월 FOMC에서 1.00%p 인상 시 역효과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The Case Against a Mega 1% Federal Reserve Rate Increase)

- 8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일부에서 9월 FOMC에서의 1.00%p 인상을 예상. 그러나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관련 공황적인(panic) 상태로 인식되면서 신용시장 충격 및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소지. 이에 연준은 고물가 상황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필요
- 또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부동산 업체의 자금조달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주거비 인상으로 연결.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

■ 러-우 전쟁, 경제에서 기대심리의 중요성을 재확인 - Financial Times

(Economics lessons from the Ukraine war: expectations matter)

- 최근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격이 이어지면서 러-우 전쟁 결과 관련 기대가 변화. 특정 상황에 대한 기대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원리는 전쟁과 경제에 모두 적용 가능
- 경제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은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 반면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 악화를 확신하게 된다면 경제에 긍정적
- 러-우 전쟁 측면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선전 혹은 승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러시아 내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악화될 가능성. 이는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 확산 등 러시아 내에 변화가 더욱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각국 경제 방향성의 주요 변수 - 블룸버그

(Will Central Banks Kill or Nurture the Polar Bear?)

■ 미국 주택가격, 재고부족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소지 - Financial Times

(US home mortgage rates surpass 6% for the first time since 2008)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